



하나님의 참된 본질을 발견하라

Discover the real nature of God

by Ron Ballard *Christian Science Sentinel*

인류에게 **하나님**과의 관계와 삶을 통해 이 신성(神性)을 실천하는 방법을 일깨워주는, 종교의 그 목적 자체가 너무나도 자주 왜곡되고 갈등과 전쟁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은 정말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. 역사를 돌아보면 종교란 명분으로 시작된 갈등의 예가 부지기수인데, 예를 들자면 십자군 전쟁, 중세기 후반의 여러 종교전쟁들, 또는 최근의 북아일랜드 분쟁 등이 있다. 그리고 오늘 날 세계의 분위기도 예외는 아니다. 중동지방의 분쟁이든, 발칸 지역이나 르완다에서 보는 종파간 갈등이든, 아니면 종파 안에서의 내부적 교리 싸움이든간에 종교전쟁은 너무 자주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불안정의 근원이다.

종교로 인한 분쟁이 차지하는 지배적 위치와 끈질긴 역사를 볼 때, 이러한 혼란을 진정시키고 치유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희망이라도 있는 것일까?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된다. 이 월간지의 창간자이며 치유사였던 메리 베이커 여사는 그렇다고 생각하였으며 여사의 초기 설교 가운데 하나인 “사람들의 **하나님** 개념 (People’s Idea of God)”에서 바로 이 주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.

이 설교문의 서두에서 여사는 진정한 진전은 “한 걸음 더 영적이 되는 것”이며, 개혁은 인간적인 지혜의 산물이 아니라 “이성으로부터 물질적인 요소들을 허물어내어 버리는 것”이라고 말했다. 이 19세기의 개혁자는 종교분쟁과 같은 문제들의 치유는 인간적 의견합치나 타협으로 이루어지기 보다는 영적인 혁명 - 사람들의 **하나님**의 참된 본질에 대한 신성의 식견을 터득함으로써 인류를 “좀 더 영적인 위치”로 올려 놓음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. (p. 1)

보통 우리는 인류가 다른 사람들의 종교적 신념이나 신조를 서로 포용하는 법을 배우면 서로 사이 좋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가정한다. 이 가정은 극히 논리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그것의 허점은, 다양한 종교적 교리와 신조들이 상호 존립할 수 있을 것이라는 바로 그 전체 자체에 있다.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포용하고자 하는 신념들 자체가 종교들 간에 거리를 만들 수 있다. 왜냐면 이 신념들이 흔히 한 종교에 의한 다른 종교의 지배 또는 여러 다른 종교들의 멸살을 조장하고 있기 때문이며, 이것이 분열의 근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.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들 종교간의 융합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망을 가지게 된다.

이 문제를 좀 더 깊이 생각해보면, 우리는 이런 물질적 요소들을 허물어내고 문제의 그 근원을 밝혀야 할 필요가 있다. 에디여사는 앞의 설교문에서, “종교와 의학의 이론과 실천의 개선은 주로 **최상의 존재** (하나님)에 관한 사람들의 견해를 개선하는데 달려있다.”고 지적하고 있다. 여사는 그 뒤에 “모든 시대를 통해 사람들의 **하나님**에 대한 관념이 비물질적이 되고 그 한계성이 없어지는 정도에 따라 그들의 **신**에 대한 관념이 개선되었다..... 이런 한층 더 완전해진 아이디어를 사람들의 마음속에 꾸준히 지닐 때에, 개인들뿐 아니라 국가들의 분쟁에 유익하고 고양하는 영향을 끼치게 마련이며, 궁극적으로 우리의 이상이 우리의 성격을 형성한다는 깨달음으로 고양시킬 것”이라고 지적하였다. (P. 2~3)

이 논리를 따르면 종교적 전쟁의 근원은 상이한 신조에 있다기 보다는 신성에 대한 우리의

For this translation in English and other translations in Korean, please see <http://translations.christianscience.com>

무지에 있다는 것이 분명해진다. 우리 각자는 우리의 종교적 성향이 무엇이든 간에 **하나님**을 제대로 알려는 경건한 기도를 통해 통합될 수 있다. 우리 각자의 종교적 틀에서 벗어나 생각하는 것이 쉽지는 않겠으나, **하나님**이 보편적이고 전지 하시다면, 이 신성의 **존재**는 분명히 스스로를 정의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이며 우리 각자로 하여금 **신의** 본질과 요체를 알 수 있도록 일깨워주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.

인간의 이기적 사고 방식으로 인해, 우리는 흔히 익숙해진 것들, 즉 습관된 것들과 이제껏 살아왔던 방식대로 생각들이 굳어져 있다. 역사를 볼 때 **하나님**에 대한 우리의 개념은 인간의 성격에 따라 형성되어 온 것이 다반사다. 분명히 인간적으로 형성된 **하나님**은 분노, 복수, 편파성, 변덕스러움과 같은 뚜렷이 인간적인 특성과 약점들을 가져왔다. 인간적 성격 안에 있는 선(善) - 신성의 현존을 반영하는 것 -이 바로 **하나님**에 대한 우리의 깨달음을 말해 주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다면 한층 더 도움이 될 것이다. 그러나 인간적인 의식으로 된 **하나님**은 바로 인간적이고, 이중적인 마음을 가진 **하나님**, 즉 오류와 진리, 악과 선, 분노와 자비의 **하나님**이다. 우리가 인간의 모습이 아닌 **하나님**다운 **하나님**을 발견할 때에만 우리는 평화와 화합의 근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. 이러한 발견은 신학적 탐구이기 보다는 일상적 실천이다. 우리가 신성의 본질이 완전한 선임을 깨달아 일상에 적용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그 사실을 증명하게 된다.

하나님을 영이라고 아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렌즈를 통해, 영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그 안에서 살아감을 의미한다. 우리는 실재에 대한 우리의 감각을 비물질화시킴으로써, 그리고 실재의 가치를 형성하는 영의 본성에 한층 더 의지함으로써, 자발적으로 **하나님**을 영으로 모신다. 이렇게 하려면 어느 정도 정신적인 집안 청소가 필요할 것 같다. 실제로 할 수 있는 데까지 물질적인 의존과 지금까지 당연시 되어온 관습들을 내버리고, 우리 생활상의 여러 욕구에 대한 좀 더 비전통적인 대응을 하고 한층 더 영감 충만한 태도로 꾸준히 나아가는 것이다. 이는 이론적으로 보다는 한층 더 실천을 통해 **하나님**을 제일 먼저 앞세우는 문제이다. 대부분의 이 세상의 종교들은 황금률(Golden Rule) - 남이 내게 해주기를 원하는 대로 남에게 해주라 -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. 이 정신을 일상생활에 적용한다면 우리의 기업경영이나 외교업무 수행, 또는 우리의 친구들과 가족들을 대하는 방법을 혁명적으로 바꾸게 될 것이 분명하다. 십계명을 적용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. 십계명을 충실히 따름으로써 우리는 우리가 인생을 통해 숭배하는 것이나 가장 신성하게 여기는 것에 이르는 새로운 접근 방식을 찾을 수 있고 또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사는 방법을 식별할 수 있다. 여기에서의 요점은 우리가 **하나님**과의 유대를 실천함으로써 이런 결과들을 가져오는데, 이것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려되고 우리의 생활 속으로 융합될 때 개인간은 물론 국가간의 평화를 불러오는 강력한 촉매제로 작용하게 된다는 것이다.

하나님을 신성의 **사랑** 그 자체라고 아는 것은 우리가 오직 치유와 영적인 성장만을 추구하는 행동의 고도(高度)에까지 오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. **하나님**이 **사랑**임을 산다는 것은 모든 사람을 고양시키는 접근법을 찾아서 모두를 축복하는 해법을 추구하는 것이다. **하나님**이 **사랑**임을 산다는 것은 그 접근법과 걸 모양에 있어 절대적이다. 그것은 인간적인 정의를

구하는 것이 아니라 신성의 자비- 즉 **하나님**의 현존에 의해 감싸여 있음이 모든 것들을 바로잡고, 부정적이거나 파괴적인 견해와 관습들을 개혁하며, 올바른 사고와 행동들을 촉진한 다는 깨달음을 추구한다.

무조건적인 **사랑인 하나님**을 의지한다는 것의 의미는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며, 누가 선택된 사람들인가 하는 등의 가능한 사항들에 대해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것이다. 완벽하게 의로웠던 사도 바울도 **하나님**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는 다는 것을 배워야만 했고, 우리도 그래야만 한다. **하나님이 사랑**임을 산다는 것은 마치 **하나님**이 그러시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신성의 성품을 나타내고 있는 사람들로 보도록 노력하는 것이다. **사랑**은 그의 피조물의 완전함과 온전함만을 안다. 따라서 이 개념이 우리에게 받아들이기 어렵게 보일지라도 이것이 이 세상의 모든 치유의 기초가 되고 있다. 세상의 지혜는 분석하는 것이다; **사랑**의 지혜는 순종하는 것 - **하나님**의 정의(定義)와 역사(役事)에 관한 신성의 사실들에 순종하는 것이다.

종교전쟁의 종말을 간구하는 기도는 다른 사람들이 변해주기를 구하는 사안이 아니다. 그것은 참여의 활동 - **하나님**과의 연대 관계가 요구 하는 바를 우리 생활을 통해 실현하는 즐거움이다. 우리의 말들보다 - 분명히 우리의 종교적 교리보다 - 우리의 생활방식이 한층 더 세상에 영향을 미친다. 삶으로 입증하고 실천하는 신성의 사실이 무엇보다 영향력이 크다. 이 영향력은 한 사람의 개별활동일 뿐 아니라, 만물을 올바르게 세우는 의지와 능력을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신성의 **원리**와 융합하는 것이다. 우리가 우리의 삶을 개인적인 명제로서 보다는 신성의 목적과 일치하는 것으로 알면 알수록 종교전쟁을 종식시키고자 하는 우리의 기도는 더욱 더 효과적이 될 것이다.